

# 전남 조선업 취업자 1773명 늘었다

### 도, 외국인 비자 개선 건의 등 성과... 7월말 기준 전년비 8.3% ↑ 수주 호황에 매출도 쑥쑥... 올해 20% 늘어난 6조6000억원 전망

전남도가 조선업 호황을 뒷받침할 인력수급 대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보다 취업자가 외국인 1453명, 내국인 320명 등 모두 1773명(8.3%)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선업 취업자 수는 지난 7월말 현재 2만2800여명으로 지난해 말에는 2만1121명이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2022년 8월, 올해 7월, 두 차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직접 만나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법무부가 이를 반영한 결과가 풀이된다.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은 ▲전문인력(E-7) 임금요건을 국민총생산(GNI) 80%에서 70%로 완화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연간 쿼터를 2000

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 ▲비전문취업(E-9) 고용허가인원을 내국인 수에 따라 18~80명으로 2배 및 최대 60% 확대 등이다.

내·외국인 근로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영암 삼호읍의 숙소 부족 현상으로 월세 가격이 10만원 이상 올랐다. 이때문에 인근 목포와 무안 남암 등에 숙소를 마련해 출퇴근하는 근로자도 상당수다.

전남도는 내국인 지원 정책도 추진 중이다. 내국인은 국비와 도비 사업으로 생산기술 인력 양성,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기능인력 훈련수당지원 등 13개 사업 185억원으로 3100여명을 지원 중이며, 7월까지 1841명을 지원했다.

조선업 수주 호황으로 전남지역 조선업에도 순

풍이 불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한조선의 매출액은 2022년 5조3400억원이었다. 2023년 7월까지 3조8398억원을 기록해 이 추세라면 2022년보다 20% 이상 늘어난 6조6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는 수주 호황에 따른 전남도 조선업 인력이 올해 1144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많이 완화되고 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조선업 수주 호황이 실제 생산으로 본격화되면서 전남 서부권의 주력산업으로서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장기적 인력수급 안정을 위해 조선업 인식 개선과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선업 재도약으로 조선산업이 활기를 되찾고 지역경제의 순풍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도시계획위 회의공개 재논의 하자”

###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법제처 해석 요구

공개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지속되어 온 광주 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회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6일 광주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 법제처 해석을 받아보자며 재논의를 요구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조례안 내용 가운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5개의 단서 조항이 담겨 있어 향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한다고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5개의 예외 조항을 담았다.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인물 정보 노출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안,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비공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함께 담았다.

따라서 조례안에 따라 회의 공개가 원칙이지만, 위원회에서 단서 조항을 내세워 공개하지 않겠다

고 할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조례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조례는 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고 회의록은 요구가 있을 시 결과를 요약해 1개월 이후 공개하도록 했다.

시는 그동안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회의를 공개한다'는 강행 규정이 아닌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1일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할 당시에는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자세를 보였으나,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의결 보류를 요청했다.

지난달 8일 법제처에 요청한 개정 조례안 관련 의견을 받은 뒤 재논의하지는 취지다.

광주시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회의를 공개한다'는 규정을 손봐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의결 보류 요구에도 개정조례안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시가 이의 제기를 하려면 시장이 재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의회는 다시 표결하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확정, 미충족 시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 /최원필 기자 cki@



“승무원 화장은 이렇게~” 2023 항공일자리 지역별 릴레이 설명회가 6일 광주대학교 호심기념도서관에서 열렸다. 승무원 등 항공 관련직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화장 기법 등을 배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김성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사퇴 논란’

### “이재명 대표 동조 식발” 1년만에 사직서...총선 행보 관측

김성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이 취임 1년 만에 사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광주시와 광주환경공단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준비하기 위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광주 동구청장 출신인 김 이사장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도 광주 동남구 진곡산단 옛 광주그린카 진흥원에서 광주연구원 개원식을 열었다. 새 출발을 알린 광주연구원은 '기회 도시'의 정책 플랫폼으로 서남권 중심도시 광주의 발전을 선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최치국 초대 광주연구원장은 ▲개발형 공간 혁신으로 머물고 찾고 싶은 '매력 도시' ▲디지털 기반 융복합 산업생태계가 구축된 '첨단산업도시' ▲인권·복지 중심의 건강한 공동체로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를 형성하는 '포용 도시'를 목표로 공간·산

5년 발언을 통해 "최근 두 달간 김 이사장 SNS 게시물 14건 중 10건이 지역구 활동"이라며 "생활폐기물, 하수 폐기물 분노 처리, 약취 문제 등 할 일이 산더미인데 본인 얼굴 알리기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 투쟁에 들어갔는데 정당인으로서 사무실에 앉아있을 수 없었다"며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식발식을 통해 동조 투쟁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 의사에 대해서는 "지금 출마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중에 따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광주시의원은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원필 기자 cki@kwangju.co.kr

# 김영록 지사 “국비 9조원 시대 열자”

### 정부 건축 기조 속 8조6000억 확보...예산심사 과정 추가 확보 당부

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국회의 2024년 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 전남의 판을 바꿀 미래 성장동력 사업과 도민 소득 증대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반영해 국비 9조원 시대를 열자”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9월 정례회를 열어 “올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도 국비 8조원 이상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그동안 전 실국이 노력한 결과 인공지능(AI) 첨단 농업 융복합지구 타당성 용역비 등 8조6000억원을 확보, 지난해보다 4.9% 늘었다”며 “앞으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비, 광주-영암 초고

속도로 사전기획조사 용역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생태 모델화 설계비 등 추가 반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 예상 경제 성장률이 1%대고,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가 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는 그동안 비축한 1700억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 별 문제가 없었지만 내년도 예산은 걱정”이라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구조조정함으로써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연구원 새 출발...미래 발전전략 구상

광주연구원에서는 분리한 광주연구원이 본격 출범해 지역 미래 발전전략을 구상한다.

광주시는 6일 오후 광산구 진곡산단 옛 광주그린카 진흥원에서 광주연구원 개원식을 열었다. 새 출발을 알린 광주연구원은 '기회 도시'의 정책 플랫폼으로 서남권 중심도시 광주의 발전을 선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최치국 초대 광주연구원장은 ▲개발형 공간 혁신으로 머물고 찾고 싶은 '매력 도시' ▲디지털 기반 융복합 산업생태계가 구축된 '첨단산업도시' ▲인권·복지 중심의 건강한 공동체로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를 형성하는 '포용 도시'를 목표로 공간·산

업·문화 중심 특성과 연구 수행 전략을 발표했다.

광주연구원은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대학, 전문기관 등과 융복합 연구를 하고 협력체계인 '싱크넷'도 구축하기로 했다. 가칭 광주 정책 포럼을 운영해 정책 공론 플랫폼 기능도 수행한다.

최 원장은 “조직 혁신, 건강한 조직 문화 형성에 힘쓰겠다”며 “지속가능한 내일 도시, 삶의 질이 높은 광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연구원은 1995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발해 2007년 광주발전연구원으로 분리됐다가 2015년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통합 운영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축정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대림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기업 표창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